



국가생명윤리정책원 제34회 콜로키움 개최를 알려드립니다.

세계 최초로 식약처의 허가받아 시판된 유전자 세포 치료제인 인보사는 미국 FDA 허가를 위해 검사를 수행하다가 약을 구성하는 세포 종류가 원래 신고한 것과 다르다는 것이 밝혀지면서, 임상시험 과정과 절차에서의 심각한 윤리적 문제 뿐 아니라 법정 공방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담보로 하는 의약품과 유전자 치료제와 관련하여 안전성과 윤리에 대해 다시 점검하고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계기를 만든 사건이기도 합니다.

인보사 사태는 피해자들에 대한 당장의 구제책 마련 외에도 여러 측면의 과학적, 사회적 이슈를 담고 있습니다. 이에 금번 콜로키움에서는 바이오의약품의 안전성과 효능, 의약품 개발과 이에 대한 사회적 관리 등에 대해서 서로 충돌하는 관점들을 검토하고 향후 논의와 사태 해결의 방향을 모색해 보고자 합니다.

연자로 모시는 백한주 교수님은 가천의대 길병원 내과에 재직하시고, 척추관절염연구회 회장을 역임하시고 대한류마티스학회 의료정책이사를 맡고 계십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의 많은 참여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참석을 원하시는 분께서는 사전에 이름과 소속, 참석의사를 메일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장소 사정상 선착순으로 참석인원을 제한할 수도 있으니 많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 주 제: 바이오의약품 관련 윤리적 이슈 - 인보사 사태 경과와 쟁점들
- 연 자: 백한주 교수 (가천의대 길병원)
- 일 시: 2019년 8월 23일 (금) 오후 2시-4시
- 장 소: 국가생명윤리정책원 4층 대회의실
- 문 의: 엄주희 팀장 (joylight@nibp.kr)